

모 두 말 씀

2017. 2. 24 (금) 08:00
금융위원회 대회의실
(정부서울청사 16F)

금융위원회 위원장
임 종 룡

※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, 실제 발언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1. 인사말씀

- 우선,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변화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금요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

2. 4차 산업혁명

- 지난해 인공지능 컴퓨터 ‘알파고’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둑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은 “4차 산업혁명”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음

-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지난해에 이어 금년 제47회 다보스포럼의 주요 이슈도 “4차 산업혁명”이었음

* ‘16년 주제: 4차 산업혁명의 이해(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)
‘17년 주제: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(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)
- 리더십의 역할 중 첫번째로 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”를 논의

-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과 IT, BT 등 그간 독자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기술들이 융합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,
- 특히 금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비약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 질 것이며, 기업과 공공부문 모두 리더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

-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경제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- 실물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(IoT) 등을 활용해 제조업체가 생산 이후 제품 상태를 계속 추적·분석·예측하여 정비·부품서비스 까지 제공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,
-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생산도 본격화되는 등 경제 전반의 생산·소비 체계에 변혁이 일어날 것임
- 인공지능(AI)과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와 기기가 확산되면서, 서비스업의 양태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- 금융권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가 업계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, 일본 미즈호 은행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고객 응대에 활용하는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도 본격화되고 있음
- 파괴적 혁명(disruptive revolution)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금융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과 제도의 틀을 완전히 깨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됨
- 특히, 금융산업 내에서도 제조업·서비스업과의 연관관계가 깊은 보험분야가 직·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- 챗봇(Chatbot)이 보험상담을 하고,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
- 뿐만 아니라,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에 따라 새로운 보험 수요가 제기되는 등 산업혁신의 간접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됨

3.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보험

-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임
-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인 인공지능(AI)·IT기술 등이 융합된 자율주행차는 이동 수단의 신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됨
-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보급률 90% 이상일 때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1,7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*되는 등,
- * 美 Eno Center for Transportation('13)
-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고령자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
-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GM·아우디 등 기존 자동차 제조사 뿐만 아니라 구글·애플 등 IT기업, 엔비디아와 같은 전자부품 제조사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
-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최초로 시범운행이 시작되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이 본격화되었음
- 국토교통부에서 선제적인 제도 정비*, 등 정책적 지원에 힘써 주시고 있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

*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, 자율주행 시스템 임시운행 허용 등(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, '16.1월)

□ 특히, 부분 자율주행기술은 지금도 많은 차량에서 채택하고 있음

- 최근 최신 차량의 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동비상제동장치(AEB)*, 차선유지지원장치(LKAS)** 등이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

* 자동비상제동장치(Autonomous Emergency Braking): 장애물과의 충돌을 감지하여 차량이 자동제동

** 차선유지지원장치(Lane Keeping Assistant System):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

-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전체 사고 중 90%에 달하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며, 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

□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함

-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따라,
 -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 차량 제조사가 가입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지는 등 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모할 수 있음
- 또한,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대규모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됨

4. 당부 말씀

□ 「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, 우리 자동차보험 시장은 다채로운 경쟁체제로 변모하고 있음

- 「보험다모아」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온라인 車보험시장*의 경쟁이 심화되었고, 여력이 있는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경쟁에 돌입하였음

* 온라인 車보험 수입보험료: ('15.1~9월) 8,999억원 → ('16.1~9월) 13,928억원 54.7%↑

-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다양한 특약도 속속 등장하여 보험사 간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음

- 빅데이터 분석하여 운전습관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인*하여 주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**을 제공하는 등 혁신적인 상품들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음

* 안전운전습관 점수(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연계평가)가 높은 경우 보험료 할인

**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을 하여 손해율이 낮은 점을 반영, 만6세 미만 등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

-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자율주행기술을 보험상품에 적시에 반영하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임

□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이 몰아치는 곳으로, 당국과 업계가 합심하여 지금부터 그 태풍의 경로와 영향을 정밀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임

-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

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것은 당국의 역할이며,

-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역할임

- 금융위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겠음

□ 경영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잭 웰치(Jack Welch)는 그의 저서 「성공의 진실을 말하다」에서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“변화해야 하기 전에 변화하라” (Change before you have to)고 한 바 있음

-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실무진 여러분께서는 이를 꼭 명심하시고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,
- 전문가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, 풍부한 식견을 시장 및 당국과 공유해 주시기 바람

□ 오늘 금요회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변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,

- 자동차보험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임
-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시면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음